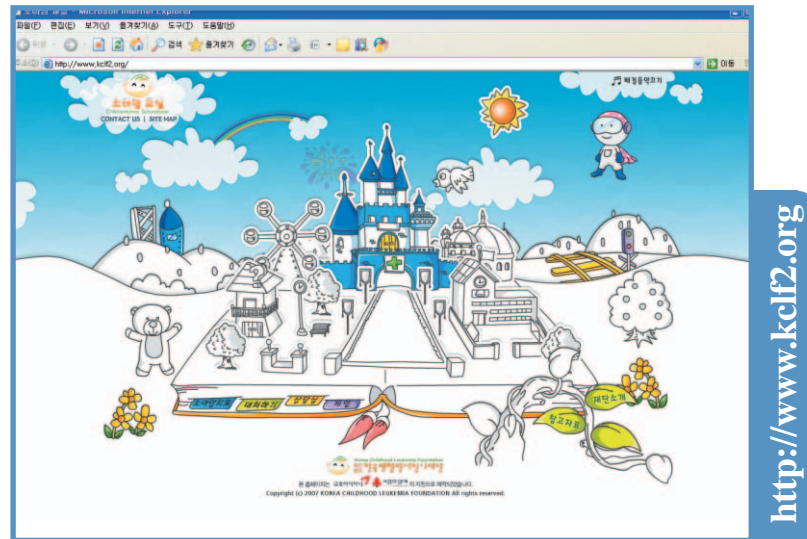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지금은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쉬**~~~~~

- 아동·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소아암 교실'로 고고씽! -

우리 함께 봄꽃같은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올봄에는 예년과 달리 개화시기가 열흘정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지루한 겨울을 털어내고 하루빨리 봄을 느끼고 싶은 저로서는 다소 섭섭한 소식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만개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해온 지난 25년의 세월동안, 힘든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기에,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치료 받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기에 매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소아암 어린이들을 진료할 당시만 해도 소아암을 불치병으로만 생각하여 아예 치료를 시작해 보지도 않거나,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기술은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발전하여, 소아암은 이제 70% 이상의 높은 치료성공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치료비 부담도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의료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져 함께 일궈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긴 여정의 초입에 있습니다. 치료성공률이 높아졌지만 아직 치료가 어려운 소아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를 무사히 마쳤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서지원 서비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조금 더 인내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우리, '모든 소아암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다시 그 최선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앞으로 이어갈 수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김 학 기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대학원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장

새로운 희망의 싹

아이가 21개월 때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번 넘기고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마치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려는데, 또 다른 암흑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저는 수술을 받고 치료만 잘 끝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던 걸까 요? 아이는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 선 치료로 인한 호르몬계 이상으로 평생 호르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받은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정신적인 장애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장애라니... 산 넘어 산이라더니...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을 도 려내는 듯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 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인데, 이따 위 후유증에 지지 않으려고 주저않지 않으려 고, 눈앞이 캄캄해도 어머니까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호르몬치료, 재 활치료와 인지치료를 받으면서 때로는 아이보다도 먼저 지쳐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옆에 아이가 있는 것만 으로 행복하다며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인지치료를 받기 전, 우리 아이는 간단한 단어 정도만 말할 수 있었고(그때 나이 4살) 아는 단어도 많지 않았습니다. 소뇌의 손상으로 운동감각과 평형감각이 떨어져서 잘 걷지도,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못하였고, 대·소근육, 감각통합, 시·지각 모든 부분에서도 수행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재활 치료와 인지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 다. 지금은 빠리는 아니지만 뛰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있 습니다.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져 연필도 제대로 못 쥐고 선도

곳지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큰 단추 잠그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학습능력도 많이 향상되어 간단하지만 문장으로 의사표현도 하 며 말도 알아듣고 단어를 조합할 줄 압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지각 훈련으로 아주 더디지만 한글도 조금씩 익히고 있습 니다.

저는 아이의 조그만 변화에도 이젠 감사함을 느끼며, 아이가 곁 에 있음에 행복해 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살, 늦었지만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요즘은



너무도 떨며 있습니다. 물론 인지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소아암의 아픈 고비를 넘기고 또 한 번의 쓰러림이 찾아 왔지만 그래도 한결음씩 나아가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짐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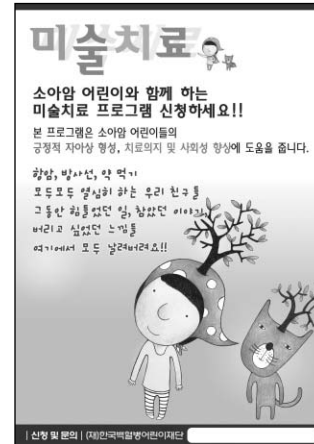
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이 러한 희망을 느끼게 해준 많은 분 중에서 한국 백혈병어린이재단은 빠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소아암 어린이들의 후유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징검다리기금'을 마련해 우리아이의 재활치료를 지원해 준 재단이 있 어서 덜 외롭고 끝까지 아이와 함께 치료받을 용기도 생겼습니 다. 앞으로 우리 아이와 같이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로 힘 들어 하는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제가 받았던 징검다리기금을 통해 따뜻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살 소현이는 뇌종양 치료를 마치고,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미술치료, 궁금해요!

1 소아암 어린이에게 미술치료가 왜 필요한가요?

소아암 어린이는 진단과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는 대신 병원에서 각종 고통을 수반하는 처치를 받고 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위축, 우울,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미술치료는 이와 같은 환자의 정서적 어려움에 개입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은 미술을 매개로 하는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 갈등, 미래의 희망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소아암 어린이는 억압되었던 자율성과 능동성을 재경험하며,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 자기 통제감을 갖게 됩니다. 한편 환자 양육자는 상담을 통해 환자의 정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단에서는 언제부터 미술치료를 했나요?

2003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총 56명의 소아암 어린이가 일대일 개별 미술치료에, 266명의 소아암 어린이가 집단 미술치료에 참여하였습니다. 2006년 2월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을 받게 되었으며, '소박한 동행' 작품전시회와 '가족, 그 사랑의 울타리' 미술치료 가족캠프가 한차례씩 진행되었습니다.

3 미술치료를 받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별미술치료는 각 지역 우체국 혼 사랑의집(신촌, 전남) 내 미술치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치료 중이거나 치료종결 후 5년 이내 소아암 및 재생불량반혈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전화로 담당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 손은주 사회복지사 ☎ 02)393-7671

2008년 보건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대상

- 18세 미만의 자(1990. 1. 1 이후 출생자)
- 2007년도 기지원대상자 중 2008년도에 만 18세(1989. 1. 1 - 1989. 12. 31)가 도래한 계속 치료 중인 환자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자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자

가. 소득 (천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389	2,353	3,079	3,798	4,464	5,137

나. 재산 (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47,313	170,426	187,856	205,068	221,042	237,179

3 지원항목

- 1)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2)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3) 희귀의약품 구입비
- 4)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5)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200만원 상한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만 18세 미만까지 1회 지원)

4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연간 최대 1,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단,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5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

- 1) 신청 장소 및 기간
 - 장소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기간 : 연중 접수(재등록신청은 부적합통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가능)
- 2) 신청서식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1부(1촌 이내의 직계존속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진단서 1부
 -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진료비 영수증
 -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 1부
 - 소득·재산·부채관계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금융기관 발행 등)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난 긍정의 힘을 믿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밝고 명랑함에 기분 좋아지는 부산 아가씨. 어느 누구보다 즐겁고 다부지게 살아가는 이분의 10년 전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감기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릴 때여서 당시 상황이 많이 기억은 안나지만 어렵듯이 두려웠던 느낌, 어머니가 거의 매일 우셨던 모습이 기억나요.

병원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 아픈 주사를 맞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못 먹게 하

는 음식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전자 레인지에 익혀 먹어야 할 때에는 정말 서러웠지요. 또 영등이가 짓물러 좌욕을 매일같이 해야 했는데 한여름에 뜨거운 물에 앉아 있는 것은 고통 중의 고통이었어요. 또 치료제가 들어가던 어느 날부터인지 물도 넘기기 힘든 상황이 되어 20여일을 링거와 치료제로만 견디며 밥 한술 넘기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학교에 갈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는데 친구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난 꼭 이걸 쓰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곤 했지만 일일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좋았던 기억도 많이 있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의사선생님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변장하여 환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때 어린 마음에 참 행복했지요. 의사선생님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척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 때의 기분이란... 또 저는 링거를 맞지 않는 날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병원 이곳저곳 바람을 가르며 다닐 때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한바탕 돌아다니고 나면 기분전환

도 되고 힘도 났어요.

저는 치료과정 중 힘들고 지칠 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했어요. 주로 게임을 많이 했는데, 어른들은 걱정하셨을지 몰라도 저에게 게임은 아픔을 잊게 해준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예요. 입원했을 때 친척 분들이나 학교친구들이 종종 병문안을 와 주었는데, 그런 관심도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치료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치료가 끝나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낯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치료를 다 끝낸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치료받을 때의 꿈은 얼른 스무 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스무 살이 되고 싶어 했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MT도 가고, 밤새 놀기도 하고, 때론 가끔 어울려 술도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놀기만 하는 것 같지요?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차석으로 장학금을 받기도 했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다음 학기에는 6개월간 중국에 가서 어학연

곽 경 주

1988년 12월 16일 생
1996년 7월 비호지킨림프종 진단
1998년 12월 치료종결
현재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2학년 재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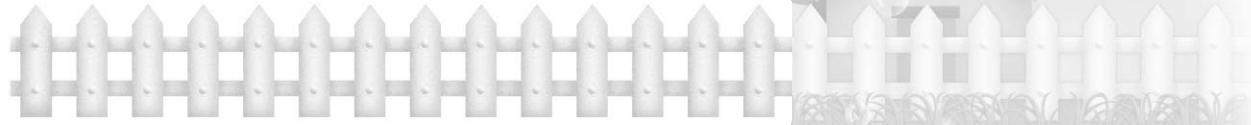
수를 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도전이라 많이 기대 돼요. 저는 더 어려운 일도 이겨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꿈은 스튜어디스가 되는 거랍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탐험했던 실력으로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의사선생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병원생활을 하면 꼭 다 나올 거예요. 아재! 아재! 아재!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길 바래요.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제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옆에서 늘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
힘내세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그 날 꼭 옵니다!!**

헌사랑의 집에서는...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

1. 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 '가족행복충전'



2008년 1월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어린이 및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 야외활동이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1박 2일간의 캠프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날은 추웠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기에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에는 부모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한 분위기는 잠시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가졌기에 이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가운데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동료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아이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2박3일 동안 항상 웃으며 묵묵히 일해 주었던 도리도리 봉사자, 의학대학원 3명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귀성길에 오르고 세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원해 있던 소아암 어린이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교수님과 수간호사 선생님께 세배를 하였습니다. 또 평소 요리에 자신 있었던 어머니들을 위한 '석봉맘을 찾아라'라는 떡볶이 대회도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응원소리에 긴장했는지 어머니들의 손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실력이 빛을 발하며 명승부의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날 가득했던 웃음과 따뜻함을 모아 2008년 한해가 희망찬 해가 되길 함께 기원했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쁜 사진을 찍어주신 와스튜디오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이정민 >

대구 우체국 헌사랑의 집

2007 천사들의 완치기원을 위한 '송년파티'



무사히 치료를 끝낸 자랑스런 아이들과 가족들을 축하하고, 치료 중인 가족들과 희망을 나누는 송년잔치가 지난 12월 17일과 21일, 경북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메달을 받은 아이들에게, 또 이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메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따뜻한 선율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희망울림 사물놀이팀'과 '대구 FC서포터즈 색소폰앙상블팀'께,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으로 아이들을 응원해 주신 SBS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각 병원 부모모임과 참석해 주신 이건수 교수님과 하정옥 교수님 외 여러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 집

설맞이 '소아암 어린이 가족 사진촬영' 착각!!

'자~~~~, 웃어보세요. 착각!!' 지난 2월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제2회 설맞이 '소아암 어린이 가족 사진촬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환자복 대신 알록달록한 색동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이를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을 찍으며 모처럼 한껏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였습니다. 이날 촬영된 사진은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액자에 담겨져 새해선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행복한 새해를 맞도록 도움을 주신 (주)휴니테크놀러지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정옥, 소상미 >

사랑이 모이는 곳...

▶ 희망장학금 전달식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전달식이 1월 21일 대학로에 위치한 레스토랑 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달식에는 자랑스러운 10명의 대학생 완치자와 가족,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 그리고 후원처 관계자 여러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정되신 10명의 대학생 완치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금호아시아나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소아암 교실’ 열리다

재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사회복지공 www.kclf2.org 동모금회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홈페이지 ‘소아암 교실’을 제작, 2월 29일 오픈하였습니다. ‘소아암 교실’ 홈페이지에는 소아암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적 부분과 암 발병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인 변화 및 학교생활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교실은 소아암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 아동, 청소년에게도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08 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선정



200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해오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은 올해에도 ‘우체국 헌사랑집집 운영 및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으로 선정,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2008년 새해 첫 손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임직원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과 후원금을 들고 찾아 오셨습니다. 2008년 나눔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나눔 문화에 앞장 서는 한국관광공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크리스마스이브, 누구보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 아침, 한국관광공사 입구에서 산타 복장을 한 한국관광공사의 임직원이 행복한 크리스마스에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로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뭉쳤습니다. 모금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닌,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신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5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소리가 12월 15일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성계열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3년부터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연주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주나 모임이 아닌, 우리 주위의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들의 아름다운 연주와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 이승환 홍보대사의 아홉 번째 차카게 살자

재단의 영리한 그리고 진정한 홍보대사 가수 이승환씨가 ‘차카게 살자’ 공연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에게 지원한 지 9회째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2월 23일 ‘2008 차카게 살자’ 공연에서는 이승환 홍보대사와 함께 DJ.DOC, 크라이넛 등이 참여하여 소아암 어린이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2001년부터 ‘차카게 살자’ 모토를 실천하시는 이승환 홍보대사님과 그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드림팩토리클럽, 구름물고기, 마스



터플랜, Mint Paper, Paraid, 그리고 공연장을 찾아 소아암 어린이 지원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전달해 주신 후원금은 ‘차카게 살자 기금’으로 조성되어 소아암 어린이 지원금으로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 뮤지컬 42번가 관람

2월 26일, 스포츠토토와 문화관광부의 초대로 국립극장에서 진행 중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42번가’를 관람하였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멋진 배우들의 춤과 노래 실력을 즐기며 2시간 30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스포츠토토와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특별기금 지원 환아 (2007. 12 - 2008. 2) ♥

▶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강병기(금성림포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1,000만원
김도현(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300만원
김서희(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김우영(금성골수성백혈병/충남대학교병원)	690만원
김원호(혈구형식성림프조직구종/서울아산병원)	700만원
김은(세종중재생물학성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0만원
박형준(혈문근육종/성모자애병원)	300만원
송애린(만성골수성백혈병/원앙대학교병원)	690만원
신동훈(금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800만원
조재민(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1,000만원
최은지(금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400만원

▶ (재활치료비 지원)

김수진(생식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
김현진(금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500만원
심다정(암막모세포종/부산대학교병원)	80만원
이원준(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300만원
이재은(암막모세포종/영남대학교병원)	200만원
이영미(뇌하수체종양/서울아산병원)	500만원
편우진(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
조두환(뇌종양/영남대학교병원)	300만원
허진영(금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300만원

▶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금

곽기원(신경모세포종/영남대학교병원)	500만원
서대현(신경모세포종/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500만원
양우빈(중중재생물학성빈혈/서울아산병원)	500만원
최동욱(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320만원

▶ 법무법인 태평양 여자변호사모임 기금(나향)

허예너(림프종/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500만원
----------------------	-------

▶ 우체국한사랑기금 : 각 300만원

박형경(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서대현(신경모세포종/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오상미(혈구형식성림프조직구종/삼성서울병원)	
이다은(혈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	
조혜원(골육종/고신의료원)	
조은진(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성모자애병원)	

▶ 차카게살자기금 (드림팩토리클럽 후원)

강병기(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300만원
강한결(재생물학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	300만원
김정현(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500만원
박창빈(원시신경외배엽종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 토털소프트뱅크기금

조혜원(골육종/고신의료원)	500만원
김정현(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400만원

▶ 휴니테크놀로지스기금

김미수(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00만원
노현우(재생물학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	100만원
조은진(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성모자애병원)	90만원
유진아(골육종/부산대학교병원)	100만원

▶ SK에너지(주)

강용현(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300만원
이나래(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300만원
김령옥(악성림프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400만원

▶ 김선호

김형수(재생물학성빈혈/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500만원
--------------------------	-------

▶ 익명후원자(지정기탁)

박 준(재생물학성빈혈/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500만원
이준석(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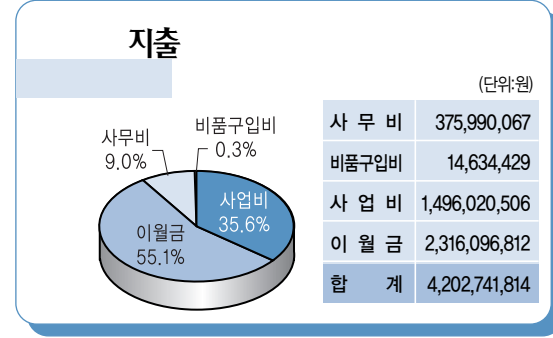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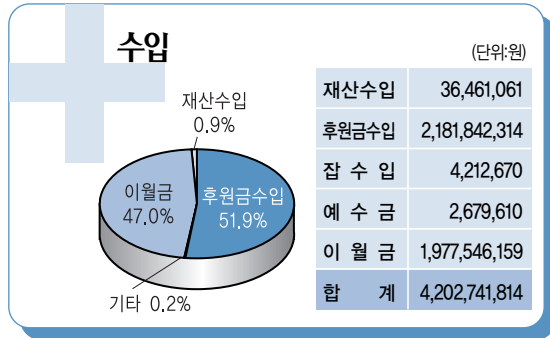
▶ 기타(환수액)

이다은(혈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	1,666,910원
-------------------	------------

▶ SBS기금(서울대학교병원 지정기탁)

강한결(재생물학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권우주(재생물학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김정현(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김미수(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김선주(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김은지(금성이종표현형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000만원
박정훈(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000만원
박형경(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신동훈(원시신경외배엽종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원진혁(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조주연(과립세포종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2007년 사업보고



▶ 사업비 세부내역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경제적 지원	천사백이식비 지원	24(명)	145,813,145 / 9.7
	새생명통장 지원	87(명)	100,050,000 / 6.7
	특별기금 지원	222(건)	567,517,361 / 37.9
	헌혈증서 지원	20,828(매)	90,236,000 / 6.0
	부모회 지원	23개 병원	45,390,050 / 3.0
	주거환경개선	12(가족)	17,463,000 / 1.2
정서적 지원	입원환아집단활동	-	27,365,020 / 1.8
	캠프	1(회) / 45(명)	9,598,230 / 0.6
	가족행사	14(회) / 1,086(명)	133,166,941 / 8.9
정보 지원	가발 지원	19(명)	14,475,000 / 1.0
	교육자료 발간	총10(종) / 22,000(부)	29,858,030 / 2.0
	상담	5,946(건)	3,305,277 / 0.2
	홈페이지 운영	-	30,748,857 / 2.1
연구지원	소식지 발간	4회 / 39,500(부)	10,193,722 / 0.7
	연구 지원	-	30,000,000 / 2.0
기획 사업	직원교육	-	13,742,968 / 1.0
	홍보사업	-	9,434,800 / 0.6
	후원회원 관리	14,693(명)	36,006,142 / 2.4
	자원봉사자 관리	-	2,378,690 / 0.2
	후원자 관리	-	14,169,596 / 0.9
	후원개발비	-	77,189,885 / 5.2
웹터운영	공공요금	-	23,022,966 / 1.5
	웹터이용사업비	웹터(5개소) / 959(가족)	19,598,460 / 1.3
	웹터장비유지비	-	37,037,160 / 2.5
추진경비	추진경비	-	8,259,206 / 0.6
합계		1,496,020,506	100 / 100

* 헌혈증서 지원과 가발 지원 현황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2007 나눔 캠페인 보고

여러분의 심시일반 정성이 모아져 이뤄진 큰 사랑 '2007년 나눔 캠페인 모금액'을 보고합니다.

활동명	내용	2007년 모금액 (단위: 원)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캠페인에 동참하는 고객의 전화요금 중 1%를 KT에서 적립하여 후원하였습니다.	5,327,620원
롯데닷컴 '희망클릭'	매월 롯데닷컴(주) 후원금 100만원과 쇼핑을 내 소아암 어린이 돕기 '희망클릭' 페이지 내에서 고객 포인트 기부를 통한 후원 및 재단 정기후원자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3,206,284원
맘스쇼핑몰 '엔젤포인트'	육아포털사이트 맘스다이어리는 맘스쇼핑몰에서 '엔젤포인트'를 개설하여 포인트를 후원하였습니다.	1,663,500원
신한 '아름다운카드'	신한 아름다운카드 사용시 결제액의 0.5~0.8%의 아름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모아진 금액을 후원하였습니다.	8,544,736원

2008년에도 KT, 롯데닷컴, 맘스쇼핑몰, 신한아름다운카드의 나눔 캠페인은 주욱~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참여방법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kcl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걸으면 40분쯤
거리에 도서관이 있다.
요즘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도서관에 자리를 잡은 후,



250원 짜리 자판기 커피 한잔
뿔아 마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이 정도의 행복으로 당분간은 만족할 것 같다.

글·그림 소복이 sobog.net

뜻있는 곳에 시작과 행복이 있습니다

정 서 화
빨간모자 여의도점 점장

제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선한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제 자신이 아니라 빨간모자 직원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저희 '빨간모자'가 지역 내에서 어렵거나 힘들어하시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일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소아암 어린이들의 생일잔치에 피자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월 저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져다준 피자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 왔습니다. 이런 게 '나눔의 기쁨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로부터 자그마한 새해 인사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에 마음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우리 피자를 먹고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피자를 먹었던 어린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날까지 저희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은 아니더라도 작은 기쁨부터라도 나누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대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도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곧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 '빨간모자'는 2006년 1월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소아암 어린이 생일잔치에 피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

소개의 글



표지에서부터 한참을 머무르게 됩니다. 가느다란 목을 쳐들고 온몸이 굳은 듯 곳곳이 서서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오리 한 마리. 왜 저러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로 유명한 작가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하면서도 미화시키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해냄으로써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죽음을 통해 삶을 훨씬 더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유아나 아동에게 죽음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그림책은 나의 죽음,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물어볼 때 가리지 않고,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는 것. 이 책에서 그려지는 죽음은 살아오는 동안 늘 나와 함께 한 삶의 한 부분이며, 또 삶을 마감하는 순간 내 곁에 있어주는 마지막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림책의 임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오리와 죽음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차분하게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집 사회복지사 소상미 >

책의 내용

얼마 전부터 느낌이 이상했던 오리. 드디어 누군가 슬그머니 자기 뒤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눈치 채고 묻습니다. "대체 누구야?"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와,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밝히는 죽음. 죽음은 커다란 해골에 기다란 옷을 걸치고, 자줏빛 툴립을 한 송이 들고 있습니다. 오리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만일을 위해 계속 오리의 곁에 있었다는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죽음이 꽤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죽음은 오리와 함께 연못에서 익숙하지도 않은 자맥질을 해주고, 연못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는 오리를 위로합니다. 오리는 죽음이 추울까봐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잘거리고, 또 죽음은 이런 오리를 말없이 지켜봅니다. 얼마 뒤, 오리의 몸은 차갑게 식었고, 이번에는 죽음이 오리를 따스하게 감싸줍니다. 그렇게 오리가 떠날 때까지 죽음은 오리의 마지막 삶을 지켜줍니다.

저자 소개

- 글·그림 | 볼프 예를브루흐
1948년 독일 출생. 그래픽 디자인 공부 후 오랫동안 광고와 잡지에 그림을 그리다 1980년대부터 어린이 책 작가로 활동. 1985년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출간. 2006년 '그림책 부문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국제안데르센 상 수상작가로 선정 등 주요한 상을 다수 수상. 국내 출간 작품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날아라, 꼬마 지빠귀야>, <똥생긴 다섯 친구>, <커다란 질문>, <생각을 만드는 책> 등
- 옮긴이 | 김경연
서울대학교 독문학 전공.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아동 문학 연구>문학박사 학위. 현재 아동문학가, 번역가로서 활동. <날아라, 꼬마 지빠귀야>, <책 먹는 여우>, <행복한 청소부>, <햄릿>, <돈키호테> 등 옮김.

만세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7. 12. 1 ~ 2008. 2. 29)

강은주 강해숙 고진아 권오혁 권혁수 기다린 김영근 김은경 김정은 김재택 서현주 송명희 신지윤 신혜정 염대섭 유승현 이상덕 이상선 이선공 이선화 이승우 이정웅 이재선 이태영 정혜영 조규현 조도형 최용성 최지영 홍준오

▶ 2008년 2월 29일까지 1,946분이 만세 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한똥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7. 12. 1 ~ 2008. 2. 29)

강금숙 강길봉 강지성 곽문환 구말령 권은영 김광민 김대수 김미연 김상철 김시내 김진희 마경희 박우중 박정식 박진남 배양기 서제영 안세훈 윤봉근 이동왕 이동원 이희선 전성일 전영석 정철희 조선희 최미라 추해미 함형원

▶ 2008년 2월 29일까지 898분이 한똥 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후원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001-01-2353-890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농협 : 029-01-176943
우체국 : 012989-01-003327
신한은행 : 310-03-002396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일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 드립니다!

- 1 후원금 납입 방법으로 전자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재단 소식지와 우편물을 후원자님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단으로 꼭 알려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소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후원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 02)766-7671(대) ✉ cancer@kclf.org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8년 2월 29일 현재)

참여후원자 : 3,268명 구좌수 : 18,417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7. 12. 1 ~ 2008. 2. 29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주)씨티아이	(주)영창	(주)정음알엔디	강보경	고석진	고효상	곽기우	권정해	권지안
김남훈	김민수	김민정	김성렬	김성민	김성연	김연정	김유경	김유정
김유지	김윤희	김은미	김재학	김재형	김정민	김정자	김춘수	김환찬
김효중	노대섭	노한미	라은경	민채원	박경숙	박재성	박지언	배상곤
변서영	서영미	소은옥	손현숙	신수정	신하섭	심정욱	안승우	오미영
유영임	유정수	유종숙	유희기	이경선	이경준	이경화	이동원	이명섭
이미정	이상림	이신아	이주희	임광빈	장국민	장선익	전민호	전병훈
정인철	조정현	주경철	지민혜	차재숙	최세희	최수연	최영석	최주연
최희남	추해미	하순남	한형전	한효철	홍기천	홍옥남	황경미	황정은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	514-07-0175564	광주은행	200-107-315315	국민은행	031-01-0414-356	기업은행	090-000260-04-022
농협	029-01-170940	대구은행	004-05-179828-001	부산은행	070-01-021379-8	외환은행	141-22-00799-6
우리은행	112-04-112571	우체국	012989-01-003313	제일은행	225-20-385050	신한은행	367-01-192434
하나은행	144-121835-00105	한미은행	100-59711-251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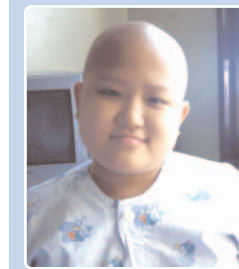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 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 및 해지를 원하는 후원자님께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전해 주면 됩니다. (☎ 02)766-7671(대), ✉ 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천사백이식비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7. 12 ~ 2008. 2)



강병기 - 2,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남)



김우영 - 2,000만원
(금성골수성백혈병/충남대학교병원/충북)



김은서 - 2,000만원
(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병원/광주)



김은지 - 1,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서정안 - 2,000만원
(비호지킨림프종/세브란스병원/서울)



송애린 - 1,000만원
(만성골수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경기)



신동훈 - 2,000만원
(금성골수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경북)



이나라 - 2,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조대현 - 2,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전북)



조재민 - 2,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최효준 - 2,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영남대의료원/대구)



사랑의 모음터

(2007. 12 ~ 2008. 2)

▶ 사랑의 헌혈증서

구세군 새성남교회(36)	그랜드코리아레저(주)(67)	김기원(7)
단타이평코리아(239)	벼룩시장(786)	삼성증권(145)
송한현(10)	심종칠(50)	알리안츠생명보험 신우회(45)
울산제일병원(15)	이동원(3)	주재련(160)
한국관광공사(47)	한국야쿠르트(226)	한영신학대학교(14)
허진수(허호준) (18)	TBC & 세양 S&T(589)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2007년 12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0,000,000	김영미 2,000,000
	김은경 1,000,000	멘토주식클럽 640,000
	윤태송 2,000,000	하수열 300,000
	한국관광공사 1,000,000	한신정신원회 1,539,008
2008년 1월	김영희 500,000	이근선 200,000
	(주)정음알앤디 1,000,000	한국관광공사 1,080,400
2008년 2월	명제욱 300,000	유학성 3,000,000

▶ 후원물품

63시티 생월잔치	김경주 마스크	김도훈 부식	김세림 과일
동성유치원 문구류	문준형씨 과일	벼룩시장 도서	빨간모자 피자
삼성증권 장난감	서울대병원우체국 케익	서울대어린이병원학교 케익	
손민기 과일	월야초등학교 TV	익명 부식, 쌀	정명생 부식
춧불회 김장양념류			

2008년 봄호는  **동이제약** 에서 제작지원해 주셨습니다.